군산 두 번째 특수학교 2027년 개교

군산지음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유초중고 총 21학급 규모, 지역 학부모 숙원 해결

〈가칭〉

군산지역에 두 번째 특수학교가 2027년 문을 연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옛 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장 부지 1만7,449㎡에 총사업비 402억6,800만원을 투입해 특수학교인 군산지음학교(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2학급 등 총 21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급증하면서 이 지역 유일한 특수학교인 군산명화학교가 과대·과밀 학교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20년 544명에서 2022년 629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군산명화학교 학생 수는 158명에서 186명으로 28명(17.7% P) 늘어나면서 특수학교를 신설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특수학교·학급 신설 및 증설' 공약을 내건 서거석 교육감은 군산 학부모들에게 특수학교 설립을 약속하고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 3월부터 136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가 생기게 된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올 1월 11일 호원대와 함께 문화·예술·체육 분야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서 교육감은 곧바로 설립 예정지인 옛 대야초등학교 광산분교를 방문해 위치 적합성 등을 살피고 교육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서거석 교육감은 "군산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되기까지 애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설립될 학교는 AI 중심 에듀테크 기반 환경 구축과 문·예·체, 서비스 및 농생명 분야의 특색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최고의 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옛 전주지립원 일대 전주 특수학교 설립은 이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장은성 기자

"탄소중립 실천, 꼭 필요한 과제"

서거석 교육감, '1회용품 ZERO 챌린지' 동참

서거석 교육감이 '1회용품 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한 이번 챌린지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약속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제"라며 "전북교육가족 모두가 일상 생활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병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김왕규 전주교대 군산부설초 교장과 이현노 신흥중 교장을 지목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도내 소외지역 학생 대상 '대학진로탐색캠프'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7월 10일~8월 3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도내 읍·면 단위 소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대학진로탐색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참여자들의 참여환경에 대한 고려 및 미래 신직업 중점분야에 맞춰 프로그램(바이오헬스, 첨단부품 소재, 디지털)을 추가적으로 개발해 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일에는 고창 상하중학교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총 7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는 참여자들의 흥미 제고를 위한 호텔제과제빵과, 호텔외식조리과를 준비했고, 또 바이오헬스 체험으로는 뷰티디자인과, 메디컬스킨케어과, 운동재활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무체험과 체계적인 진로설계 전략 수립을 도왔다.

특히, 각 프로그램별 '재학생 멘토링'을 활용해 상하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을 통해 궁금증들을 해소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원광보건대 고등직업교육거점사업 A등급

익산시와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흠) 컨소시엄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1년 차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시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 1차년도 평가 결과, 호남·제주권 컨소시엄(총 6곳)에서 최고등급(A)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년도 최고등급 달성으로 2차년도 사업비 2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돼 국비 1억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은 전문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특화 분야의 직업교육 고도화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 사업으로 2025년까지 정부가 사업비 90%를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원광보건대학과 지역특화분야(그린바이오 식품, 돌봄특화서비스)와 연계 정규교육과정, 성인학습자 및 중장년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을 지난 1년 진행했다. 특히 그린바이오식품과 돌봄서비스 분야 관련 학과를 연계한 교육과정개발과 메디푸드 가정간편식(HMR) 과정, 스마트헬스케어움직임전문가 과정 등 직업교육 고도화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익산시·원광보건대학교 컨소시엄은 지역 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학령기부터 전 생애에 걸친 지역특화분야 인력 양성, 지역 연계 평생직업교육, 사회공헌 등을 중점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활성화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미래형 거점유치원 수업나눔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푸른숲유치원이 숲 놀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태계변화 속 유아들의 행복한 삶·배움 확장

도교육청, 미래형 거점유치원 수업나눔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미래형 거점유치원 수업나눔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형 거점유치원은 미래사회와 지구생태계 변화 속에서 유아들이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과 배움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군산도담유치원을 비롯해 △군산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리백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수한사랑유치원 △우석대학교부설유치원 △활짝핀유치원 △푸른숲유치원 △호원대학교부속유치원 등 8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수업나눔은 △이리백제초병설유치원의 '백제 작은 숲 놀이터'를 시작으로 △푸른숲유치원의 숲 놀이 수업 '푸른숲 그린라이트' △군산도담유치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 '디지털과 만나는 동물놀이' △우석대부설유치원의 생태놀이 수업 '물과 흙 세상은 어떨까?' △호원대부속유치원의 민주시민교육 수업 '놀이 속에서 펼쳐지는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군산금빛초병설유치원, 장수한사랑유치원, 활짝핀유치원에서도 디지털을 기반 수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수업나눔은 유치원의 미래교육과 수업혁신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유치원 미래교육에 대한 교육력 강화를 통해 전북의 유아들이 미래사회의 행복한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시'의 아름다움, 낭송으로

〈詩〉

도교육청, 9월 23일 '전북 학생 시 페스티벌' 개최

초·중·고등부로 나눠 진행… 25일까지 신청해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들에게 문학적인 활동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2023년 전북학생 시(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3일 전주기접놀이전수관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는 도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학생 시 낭송대회, 시 체험부스, 시인 초청 강연, 공연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학생 시 낭송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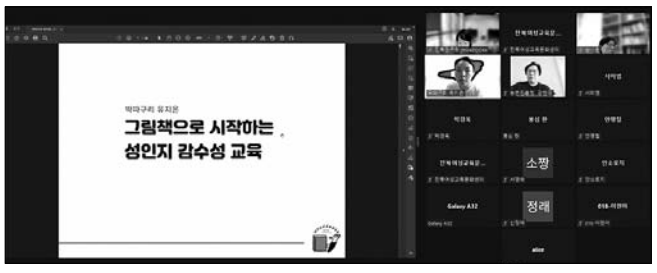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신청 접수를 받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북교육청 문예체건강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낭송 기준은 국내 시인의 시 1편을 암송(3분 이내)하는 것으로, 자작시 및 해외시는 제외되며 배경음악이나 소품, 악기 사용 등도 불가하다. 참가 신청이 많으면 예선심사를 거친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다양한 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의 아름다움을 낭송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양육자를 위한 양성평등·성교육 그림책 읽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성인지 감수성 교육 온라인으로 3회 걸쳐 진행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영유아 양육자 대상 '양육자를 위한 양성평등·성교육 그림책 읽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센터 온라인 교육 화면 캡처〉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영유아 양육자 대상 '양육자를 위한 양성평등·성교육 그림책 읽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기의 자아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가 그림책을 통해 아이를 지도함에 있어 성 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3일 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영유아 교육전문기업인 딱따구리의 유지은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다.

1회차의 아동 콘텐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와 양성평등한 그림책 고르는 법으로 시작해 2회차에서는 해외의 양성평등 교육을 둘러보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성교육을 소개했으며, 마지막 날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성교육 그림책 소개로 이어졌다.

그림책 속 성적 역할 모델, 직업,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주제 및 사례를 다루며 이를 통해 유아들에게 성별과 관련된 편견이나 제한된 사고 방식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도록 하는, 보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정희 센터장은 "그림책을 활용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돌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유아들이 평등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고, 영유아가 사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성평등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bwc.re.kr)나 전화(063-254-3817)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11일 오전 대학 본부 4층 총장실에서 유홍렬 덕암학원 이사장의 예방을 받았다.

"졸업생들이 많이 진학해 지역 인재로 성장해 가길"

유홍렬 덕암학원 이사장, 군산대 이장호 총장 예방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11일 오전 대학 본부 4층 총장실에서 유홍렬 덕암학원 이사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장호 총장은 "김제지역의 명문 사학인 덕암학원 이사장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 지역 교육을 위해 앞장서 온 덕암학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홍렬 이사장은 "지난해 총장 취임 이후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장호 총장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산업 인재 육성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군산대에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이 많이 진학해 지역 인재로 성장해 가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나눴다.

김제 덕암학원은 지난 1954년 설립된 후 유홍렬 교육학 박사가 건강하고 성실한 지성인을 기른다는 교육이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덕암학원 산하 덕암중학교, 덕암고등학교, 덕암정보고등학교 등 3개의 학교에서 지금까지 5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문 사학이다.

그동안 국립군산대학교는 덕암학원 산하 학교에서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입시 교류 활동을 했으며, 지난해 입시에서 덕암고는 14명, 덕암정보고 졸업생 3명이 최종 등록했다.

/군산=김판곤 기자